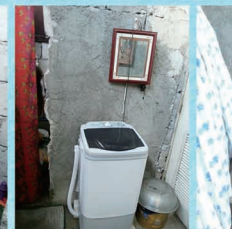


2018년 5~6월
제280호

교황청 꿈나무





엘렌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노혜인 안나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선교





교황청 꿈나무 캠프를 통해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엘렌의 집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반듯하게 지어진 예쁜 집은 아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에요. 공사할 때 찍은 사진들을 친구들과 나누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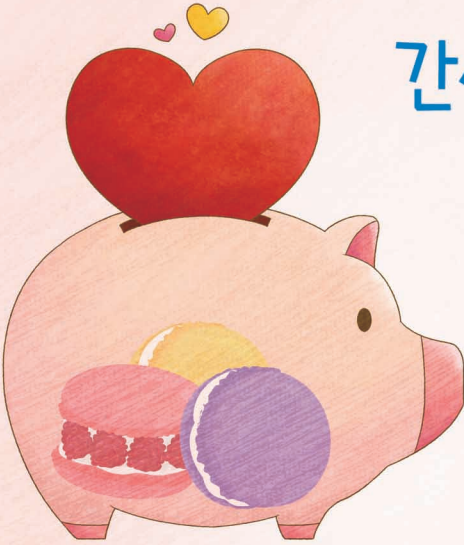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화장실과 샤워실이 새로 생겼고, 튼튼한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졌어요. 교황청 꿈나무 친구들이 보내 준 후원금으로는 바닥 지지대, 벽, 지붕과 화장실을 만들었지요. 아직 페인트칠과 창문 수리가 남았는데 나머지는 엘렌 가족이 생활하면서 손볼 거예요. 사랑스러운 엘렌이 새롭게 변한 집 덕분에 정말 행복해했어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더운 여름에는 한 줄기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교의 꿈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현장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후원을 통해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선교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선교사예요.



간식보다 스티커가 좋아요

백강현 콘스탄티노/대전교구 관저동본당, 5학년



우리 본당에서는 미사 때 복사를 서면 선물로 간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회합을 통해 간식을 받는 대신 스티커를 하나씩 받아 하늘 은행에 저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스티커는 개수에 따라 성탄절에 선물과 교환할 수 있어서 저와 친구들은 복사를 서고 스티커를 열심히 모았습니다.





어느새 성탄절이 다가왔고 복사단 회합 시간에 수녀님께서 기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간식비를 아껴 모은 금액으로 각자 원하는 선물을 받을지 아니면 어려운 친구들에게 후원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복사단 25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19,19)라는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모두 어려운 친구들을 돕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가 된 우리는 간식을 먹을 때보다 더욱 마음이 풍족해졌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모은 간식비가 가난하고 배고픈 친구에게 큰 사랑과 행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황청 어린이전교회에서 꿈나무 친구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제는 ‘**장래 희망**’이에요. 친구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와 함께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세요. 글을 보내 준 어린이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려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 글(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8매), 함께 실릴 본인 사진,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어 보내주세요

보낼 곳 E-mail: pmsk@pmsk.net / 주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중곡동) 교황청 전교회 한국지부



성 비토

(303년경, 축일 6월 15일)

비토는 3세기 말 무렵 시칠리아섬에서 원로원 의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유모 크레센시아와 그녀의 남편 모데스토는 그리스도교 신자였어요. 이들의 영향으로 비토는 12세에 아버지 몰래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고발했어요. 총독은 훈계와 고문으로 신앙을 포기시키려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를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냈어요.



비토는 아버지의 집에서 더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모 부부와 함께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루카니아로 떠났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곧 주위의 이교도들이 그들을 고발하여 재차 법정에서 서게 되었고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로마에서 비토는 하느님께 기도하여 여러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스도교에 대한 혹독한 박해를 가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치유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에게 희생 제물 바치기를 거부하자 비토와 그 일행은 마술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갖은 고문을 당했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두 무사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재판관은 그들을 맹수의 밥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맹수들이 순해져 덤벼들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국 재판관은 그들에게 더욱 참혹한 고문을 가해 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어요.

비토 성인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 독일과 그 인근에서 활발히 행해졌고, 그의 유해 일부가 작센으로 이장되었어요. 그의 상본을 보면 보통 한 소년이 순교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거나 펄펄 끓는 가마 속에서도 살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돼요.



말씀을 생각해요

1. 예수님께서서는 “네 ○○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19,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이웃 ② 자식 ③ 가족 ④ 친척

2. 순교를 상징하는 식물로, 비토 성인의 상본에 자주 등장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 ① 제라늄 ② 사랑초 ③ 호야 ④ 종려나무

3. 비토 성인이 아버지 몰래 12세에 받은 성사는 무엇일까요?

- ① 병자성사 ② 세례성사 ③ 견진성사 ④ 성품성사



말씀과 놀아요

그림에서 서로 다른
다섯 곳을 찾아보아요!

※ 정답은 5월 31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힌 어린이 가운데 선착순 14명에게는 5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성 비토, 성녀 크레센시아, 성 모데스토의 순교」

[제279호 퀴즈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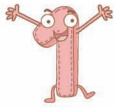
♥ 말씀을 생각해요 1.③ 2.④ 3.① ♥ 말씀과 놀아요

[제279호 퀴즈 정답자]

서울대교구 논현2동본당의 최이아 어린이, 하비에르 국제학교의 김서현 어린이, 대전교구 당진본당의 윤요한 어린이, 수원교구 여주본당의 김민준 어린이, 의정부교구 지금동본당 김범준 어린이가 정답을 보냈습니다.



꿈나무 소식



하나, 교황청 전교기구 정기 총회 개최

교황청 전교기구는 2018년 5월 28일(월)부터 6월 2일(토)까지 로마 프라테르나 도무스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해요. 한국지부에서는 지부장 김준철 신부님이 참석해요.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꿈나무 친구들이 기도해 주세요.



둘,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 안내

2018년도 납부 기부금부터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와 예금주가 동일하여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친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될 예정이며, 영수증을 처음 발급받을 친구는 기구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제공을 동의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셋, 새로운 친구를 환영합니다!

2018년 1~2월에는 의정부교구 덕정본당의 최여진 어린이, 부산교구 아음본당의 최아영, 최은지 어린이가 어린이전교회 식구가 되었어요.



넷,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회비 보고

친구들이 2018년 1~2월에 보내 준 회비는 총 1,359,500원이에요.

▶ 개인 회원 회비는 총 930,000원으로 강민건 10,000원, 강민서 10,000원, 강민솔 10,000원, 강민웅 10,000원, 고예준 30,000원, 공연수 2,000원, 김동현(201025) 10,000원, 김동현(201041) 10,000원, 김민준 10,000원, 김민혜 10,000원, 김범준 20,000원, 김선미 4,000원, 김소희 6,000원, 김시는 2,000원, 김연아 10,000원, 김인균 10,000원, 김재민 10,000원, 김채은 10,000원, 김하연 60,000원, 김하은 10,000원, 김학선 4,000원, 류인권 4,000원, 문지수 20,000원, 문지희 20,000원, 박한진 6,000원, 방성은 10,000원, 서동욱 10,000원, 서동현 10,000원, 서지민 4,000원, 소준명 10,000원, 손범준 5,000원, 손수호 4,000원, 손아윤 10,000원, 손태연 10,000원, 신서윤 20,000원, 신서의 4,000원, 심소현 20,000원, 심윤하 20,000원, 심현성 20,000원, 안서진 20,000원, 윤요한 10,000원, 은서현 10,000원, 은채현 10,000원, 이가는 10,000원, 이동률 10,000원, 이두호 6,000원, 이상인 10,000원, 이상준 6,000원, 이성규 10,000원, 이소는 10,000원, 이연두 4,000원, 이연호 4,000원, 이유민 20,000원, 이채민 10,000원, 임소영 4,000원, 임수빈 10,000원, 임채민 10,000원, 임하는 10,000원, 장무진 3,000원, 장서윤 8,000원, 장채운 8,000원, 전윤호 20,000원, 전재현 20,000원, 정도림 10,000원, 정서진 6,000원, 정소미 2,000원, 정유준 20,000원, 정주영 20,000원, 정주는 20,000원, 진하량 6,000원, 진하을 12,000원, 최윤형 40,000원, 최이아 40,000원, 한호재 10,000원, 허성현 20,000원, 홍승희 6,000원을 보내 주었어요.

▶ 단체 회원 회비는 총 429,500원으로 대전교구 덕산본당 50,000원, 인천교구 서운동본당 30,000원, 청학동본당 복사단 60,900원, 수원교구 남양본당 복사단 181,000원, 청주교구 목행동본당 168,500원을 보내 주었어요.



다섯, 회비를 입금해 주세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껏 모은 회비를 이곳으로 보내 주세요.

- 국민은행 045-01-0155-088
- 신한은행 100-027-267395
- 하나은행 388-910003-06104
- 농협 351-0097-3281-03
- 우리은행 1005-801-858453
- 우체국 012823-02-225971

(예금주: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교황님 세계 선교 기도 지향

5월: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들이

현대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창의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기도합니다.



꿈나무 친구들을 위한 미사 봉헌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지부장

김준철 신부님께서 꿈나무 친구들이

5월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6월에는

고통받는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와 나눔을 통해

교회 재건에 동참하도록

은총을 청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Pontifical Society of the Holy Childhood in Korea

교황청 어린이전교회는 어린이를 돕는 어린이들의 모임입니다.

주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 (중곡동) 웹사이트 www.pmsk.net

전화 (02)2268-7103, 460-7608~11 팩스 (02)2268-7104 이메일 pmsk@pmsk.net